

보도시점

2026. 8. 12.(수) 15:00

배포

2026. 8. 12.(수) 06:00

“폭염 속 휴식은 같이,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 농업 분야 폭염 대응 안전 수칙 준수 캠페인 추진

- 8.12일(수) 송미령 장관, 농업인 단체장들과 캠페인 발대식 참석
- 8월 말까지 농업인 단체별 폭염 안전수칙 전국 확산 위한 캠페인 지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8월 12일(수)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송미령 장관과 14개 농업인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농업 분야 폭염 대응 안전 수칙 준수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 슬로건으로는 “폭염 속 휴식은 같이,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를 내걸었는데,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 등 농업 분야 종사자들이 폭염 시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이다.

* ①시원한 물 제공, ②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 조정, ③체감온도 33도 이상시 매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④개인 보냉장구 지급, ⑤온열질환 의심자 발생시 119 신고

이날 행사에서 송미령 장관은 폭염시 농작업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농업인 단체가 나서서 폭염 안전수칙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농업인 단체장들은 8월말까지 자체 캠페인을 통해 현장의 농작업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화답하고, ‘농업분야 폭염대응 안전수칙 실천 약속’을 낭독했다.

참고 농업 분야 폭염 대응 안전 수칙 실천을 위한 약속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실 농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1711)
		담당자	사무관	김선이 (044-201-1721)

참고

농업 분야 폭염 대응 안전 수칙 실천을 위한 약속

극심한 무더위가 일상화되면서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폭염 속 무리한 농작업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업인과 농작업자가 함께 쉬고 서로의 안전을 살피는 안전한 농작업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에 우리 농업인단체는 “폭염 속 휴식은 같이,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라는 뜻을 함께 새기고, 안전한 농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하나,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 휴식을 최우선으로 지킨다!

하나, 작업 중에는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고, 냉방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작업 시 동료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온열질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신속한 응급조치와 119 신고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농업인단체 일동은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의 약속을 각자의 농업 현장에서 적극 실천하고 폭염 속에서도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26년 8월 12일
농업인단체 일동